취업자 늘었지만…대부분 자영업자

광주·전남 7월 실업률 호전 불구 고용의 질 기대 못미쳐

지난달 광주·전남의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농림어업,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선 덕분이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수가 늘어나고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도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고용의 질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취업자 수는 69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만2000명(1.8%) 증가했다. 실업률도 2.8%로 같은 기간 0.6%포인트 하락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9000명), 농림어업(1000명), 제조업(3000명) 부문에서 취업자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기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수는 2009년 7월(8만1000명) 급감했다가 2010년 7월 9만9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9만6000명) 제조업 취업자수가 오히려 줄면서 그 여파로 지난달 회복세가 부각됐다는 것이다. 실제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 3월(10만1000명)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은 줄었지만 자영업자 증가 폭이 컸다.

광주지역 자영업자 수는 14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명(3.0%)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6월(14만8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자영업자수가 지난 1분기 13만7000명에서 올 2분기 14만2000명으로 5000명(3.6%)이나 급증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10만6000명으로 한 달 사이 3000명이나 급증했으며 무급가족종사도 지난달 2만9000명으로 지난 3월(2만6000명)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수는 9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4000명(1.6%)늘었다. 서비스 관매직(7000명) 등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2만3000명) 부문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제조업(1000명), 농림어업(1000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

특히 자영업자가 1년 사이 3000명이 늘면서 지난 7월 31만8000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무급가족종사자가 12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명이나 증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아차 캠핑 이벤트 100명 모집 기아자동차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기아차를 보유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파이팅 샐러리맨! 캠핑 이벤트'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다. 쏘울과 K5가 미국 J.D.파워의 '2012 상품성 만족도' 조사에서 차급별 1위에 오른 것을 기념해 마련한 것으로, 사연과 참여 인원(4~8명) 등을 적어 기아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기아차 제공〉

진도대교 케이블 재활용 공법 수입 대체…예산 21억원 절감

익산국토관리청 이동익 주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6일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이동익(39·사진) 주무관 등 3명이 국내 최초로 진도대교의 케이블 하중을 균등하게 재조정하는 '케이블 장력조정 공법'을 도입, 예산 20억7000만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2등교인 진도대교를 1등교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68개 케이블 중 하중이 초과된 8개 케이블을 교체해야 하는데, 하중부담을 균등하게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굳이 케이블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량의 등급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본에서 전량 들여오던 케이블 자재의 수입을 막아 구매비용 28억원을 절감했고, 이 중 장력조정 비용으로 7억3000만원을 사용해 실제 20억7000만원을 절감했다.

특히 이 공법은 남해대교·돌산대교 등 노후 케이블교량 유지 관리에 적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공법은 케이블교량 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으로부터 두차례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 주무관은 "연도교·연륙교 건설 등으로 케이블 교량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노후 케이블에 대한 유지 관리, 성능 개선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공법은 해상교량 관리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재정수입 증대와 예산 절감에 기여한 이 주무관과 고명석(57) 과장, 김재룡(42) 계장 등 3명에게 예산성과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전기·도시가스·철도 등 공공요금 정부, 산정기준 적절성 여부 검토

정부가 중앙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공공요금 기준이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고칠 사항이 있는지 추려보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은 전기, 도시가스, 광역상수도, 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이다. 공공요금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비판 때문에 정부가 적절성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공공기관 결산평가서에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일부 공기업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요금 산정 기준이 2005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돼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환경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공공요금의 결정 과정·방식과 산정기준 등과 관련한 법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 간 정합성 확보, 개별 공공서비스의 원가 특성 반영 측면에서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업체 23곳 선정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의 일감 확보를 위해 시행 중인 2012년도 지식거래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의 3차 평가에서 지원대상 업체 23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 2차 평가 때 선정된 25곳을 포함한 총 48개 업체가 수주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재료비와 장비 임대료 등 비용을 지원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선정된 업체는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개발원가의 50%까지 국비(3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15억 원이다. /연합뉴스

■ 새얼굴

"IT 선도기업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김진철 KT 전남고객본부장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4일 취임한 김진철(50) KT 전남고객본부장(상무)은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유·무선 조직을 통합했다"면서 "조직 안정화와 IT 선도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본부장은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 시간주립대 글로벌정보통신정책과정(MSU)을 수료했다. 1989년 KT에 입사해 솔루션사업단 사업전략부장·유통지원센터장·분당지사장·전남마케팅단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 제도 유지땐 국민연금 2053년 고갈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이 2053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부 추정보다 7년이나 빠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국민연금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이같이 추정하면서 2025년까지 보험요율을 현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3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발표했던 2060년보다 7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물가상승률, 기금수익률이 당시 추정했을 때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예산정책처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대수명이 2008년 재정계산보다 2050년 남자는 2.2세, 여자는 0.4세 늘어났다. 또 물가상승률은 최근 4% 수준으로 2008년 가정보다 2.0%포인트가량 높고, 2007~2010년 실제 기금수익률은 7.1%로 과거 예상인 7.9%보다 낮았다. 연합뉴스

대우일렉 벽걸이 세탁기 '미니' 30개국 수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16일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벽걸이 세탁기 '미니'〈사진〉를 프랑스·스페인·페루·러시아 등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벽에 부착해 사용하는 미니는 용량이 3kg인 소형 드럼세탁기다.

우선 중남미에서는 페루·칠레·멕시코·파나마·브라질에 수출할 예정이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의 엘 코르테 잉글레스(El Corte Ingles) 백화점에 독점 입점을 확정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영국·독일 등에 하반기 중 수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 등은 다음 달부터,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는 10월부터 판매를 진행한다.

대우일렉 관계자는 "미니는 세계 최초 벽걸이 드럼세탁기"라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코스피지수	1,957.91 (+0.95)
▲ 코스닥지수	485.32 (+4.58)
▲	2.95% (+0.08)
▲ 원·달러 환율	1,134.00원 (+4.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